

## 북한 인프라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민간차원 자원조달 필요... 대출 회수장치도 필수

### 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

#### 자체적 개발자금 조달 기반 구축 금융시스템 재구축 작업도 과제

한반도 화해 분위기로 대북제재가 풀리고 북한개발이 본격화되면 관련 자금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 내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14일 '북한 내 인프라 개발 추진 시 민간 자원 조달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북한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자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대출금 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남북협력기금상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제도가 있다. 그러나 소요재원의 추

정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영석 KDB미래전략연구소 통일사업부 연구원은 "개발 초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무상원조나 양허성 차관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북한 인프라 전반의 낙후수준 등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부족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자체적으로 개발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주로 활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은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 같이 정치적 위험이 큰 국가의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위험관리방안은 필수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위험이 큰 국가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국제투자 보증기구인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금융 시장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이런 국제 기구를 통한 정치적 위험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 연구원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큰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프라 개발 프

로젝트의 경우 사업 중단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개발 관련 토지사용료의 자본금 출자나 해당 출자금 우선 집행 등 북한의 능동적인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0년부터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개발비용의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했지만 대북제재 등으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실적은 없는 상태다.

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신용등급이 부여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신용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북한 인프라 투자 등 경제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원조달에 우리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북한의 금융시스템을 보다 시장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작업도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북한의 경제개발구 유형별 구분〉

/자료=금융연구원

구분	중앙급	지방급
종합형	신의주국제경제지대	압록강, 만포, 청진, 혜산, 경원, 강남
전문형	공업개발구	위원, 현동, 흥남, 청남
	농업개발구	북청, 어랑, 속천
	관광개발구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무봉국제관광특구
	수출가공구	진도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녹색시범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일대에서 북한 군사들이 근무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1일 진행된 KB국민은행-KB증권 복합점포 개점행사에서 김운태 KB국민은행 대전·충남지역영업그룹 대표(왼쪽 두번째), 이형일 KB증권 WM총괄본부장(오른쪽 두번째) 및 임직원들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 KB금융 '은행·증권 복합점포' 신규 오픈

국민은행 불당동점·증권 천안점 이전

KB금융그룹은 지난 11일 KB국민은행 불당동지점과 KB증권 천안지점을 동시 이전해 은행·증권 복합점포를 신규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은행·증권 윈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점포를 총 53개로 확대했다.

이번 복합점포는 KB금융이 충남지역에서 PB센터가 아닌 일반 영업점 형태로 오픈하는 첫 번째 복합점포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52개의 복합점포를 운영 중인 KB금융은 올해 권역별 지방대도시 중심의 복합점포 커버리지 확대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합점포에서는 고객의 자산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의 투자성향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은 은행·증권 점포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복합점포에 마련되어 있는 공동상담실에서 은행과 증권 PB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증권의 우수PB가 하나의 팀이 되어 다양한 은행·증권의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세무 컨설팅, 해외주식 세미나 등 고객의 수요에 맞는 자문컨설팅도 제공하게 된다. /안상미 기자

## 삼성카드-토스 제휴카드 'Toss taptap S' 출시

삼성카드가 간편송금운영업체 '토스'와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고 제휴카드상품인 'Toss taptap S'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두 회사는 역량을 활용해 서비스 연계를 통한 회원 확대 및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략적 업무 제휴의 첫 결과물인 'Toss taptap S'는 삼성카드의 taptap

브랜드 상품을 토스 앱에서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토스'와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들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향후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미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작년 446억 사고 예방

###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등 분석

### 사고유형 탐지 등 고도화 추진 계획

지난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446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은행과 증권회사의 FDS 운영을 통한 사고예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사고예방 건수는 3665건, 금액은 445억8000만원이라고 14일 밝혔다. 1개사 기준으로는 연평균 79.6건, 9억 7000만원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

FDS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생성되는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 및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부터 은행(20개사)과 증권회사(26개사)가 구축해 운영 중이다. 증권사보다는 이체거래가 많은 은행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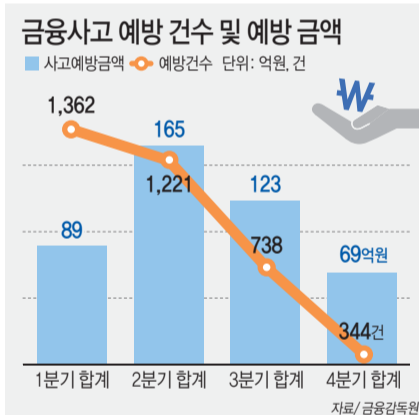
은행의 사고예방 건수는 3588건으로 429억7000만원 규모다. 1개사 기준 연평

### 롯데카드

### SKT통신요금 할인카드 출시

롯데카드가 SK텔레콤통신요금자동이체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롯데카드 텔로 SKT' 카드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롯데카드 텔로 SKT 카드는 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하고, 지난달 이용금액이 30·70·120만 원 이상일 경우 각각 1만 6000원·2만1000원·2만6000원이 할인된다. 카드 최초 발급 후 2개월까지는 이용금액이 30만 원 미만이어도 통신요금 1만 6000원을 할인해준다. 또 이 카드로 SKT 매장에서 휴대폰 단말기 등 제품을 할부 구매하면 24개월 5.5%, 36개월 6.9%의 할부수수료를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적으로 차단 및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안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 건수는 956건이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 금액은 198억6000만원으로 전체 사고예방 금액의 44.5%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신종 사고유형을 탐지할 수 있도록 FDS를 고도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FDS 운영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금융거래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금융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자금이체 관련 추가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진행 중인 거래인지를 확인 후 추가인증을 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신한銀-신한베트남銀 현지 경제전망 세미나 개최

신한은행은 신한베트남은행과 공동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11일부터 이틀간 '2018년 하반기 글로벌 및 베트남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한인 기업가와 근로자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한인상공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베트남 및 글로벌 경제 전망과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내용으로 2시간반 동안 진행됐다.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국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



베트남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전망 세미나'.

/신한은행

해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전망과 현지 경제 동향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과 투자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